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

Received: April 15, 2022
Revised: May 25, 2022
Accepted: May 30, 2022

김태연¹, 최은실²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석사¹,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교수²

교신저자: 최은실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14662) 경기도 부천시 지봉로
43 미카엘관

The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on Social Anxiety: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E-MAIL:
ces726@catholic.ac.kr

Tae Yeon Kim¹, Eun Sil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¹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²

© Copyright 2022.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All Rights Reserved.



* 이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ABSTRACT

본 연구는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386명을 대상으로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간에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다. 둘째, 행동억제 기질은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각각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간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성인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원인 파악 및 성인 기질을 포함한 개인의 내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성인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기 위해 다요인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성인의 심리적인 특성을 다루는 상담 전략을 통해 사회불안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

주요어 :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이중매개효과

사회불안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역학조사에 따르면 사회불안으로 병원을 방문한 20대는 2013년 대비 9.8% 늘었는데(홍진표, 2017), 이는 전체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증가 추세였다. 특히 초기 성인기에 사회불안 증상을 보이는 사람의 비율은 25% 전후에 이르며(Merikangas et al., 2002), 사회불안 증상을 가진 사람은 대인관계(Davila & Beck, 2002), 취업(Wittchen & Beloch, 1996) 및 전반적 삶의 질(Mendlowicz & Stein, 2000) 등 다양한 중요 기능 영역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되어 현저한 고통을 겪는다(권은미 et al., 2009). 사회불안의 주원인은 생물학적 취약성, 인지 및 정서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Barlow, 2004).

먼저 생물학적 취약성 요인으로는 기질 중 특히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다. 기질이란 생후 초기부터 관찰되는 행동, 정서 및 반응에 대한 개인차로 정의된다(Allport, 1961; 남원희 et al., 2020에서 재인용). 기질의 다양한 요인 중 Garcia-Coll(1984)이 제안한 행동억제 기질은 사회불안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양주경, 김은정, 2007; 최미미, 조용래 2008; Biederman et al., 2001). 행동억제 기질이란, 유아기나 초기 아동기부터 나타나는 고유한 개인적 성향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람 혹은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으로 정의된다(Fox et al., 2005; Kagan et al., 1988). 특히 유년기의 불안이나 억제적 기질은 성인기까지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데(Kagan, 1994), 성인기의 높은 행동억제 기질은 좁은 사회적 관계망, 적은 활동성 등 적은 사회적 상호작용의 양상으로 나타난다(Caspi et al., 2003; Schwartz et al., 1999). 또한 높은 행동억제 기질은 정서 관련 부분에서 회피와 같은 부적

응적 정서 조절 방식을 사용할 가능성을 높이며(Leen-Feldner et al., 2004; Zvolensky et al., 2001), 이는 사회적으로 고립될 확률을 높인다(Kagan et al., 1987). 이와 함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행동억제 기질의 영향력이 감소된다는 연구(오경자, 양윤란, 2003b)도 존재하는데, 이는 행동억제 기질이 다른 변인을 통해 사회불안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오윤희 et al., 2005). 즉, 사회불안이 한 가지 변인이 아닌 다양한 변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다(오경자, 양윤란, 2003a; Rapee & Spence, 2004).

사회불안의 발생 및 유지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으로는 거부민감성이 있다. 인간은 타인들로부터 거부보단 수용 받고자 하는 욕구가 존재하나(Baumeister & Leary, 1995), 누구나 살면서 거부의 경험을 겪는다(Downey & Feldman, 1966). 거부민감성 모델은 유아기 때부터 비일관적이고 무반응적이며 거부적인 양육자로부터 반복적인 거부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후 삶에서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는 기대를 형성한다고 제시한다(Levy et al., 2001). 즉, 유아기 때 형성된 거부민감성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데(박명진, 양난미, 2017), 높은 거부민감성을 가진 개인은 거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잠재적 거절의 가능성을 보이는 사회적 상황 및 관계를 회피하거나(Kross et al., 2007), 대인관계에서 수동적이며 회피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다(Downey et al., 2000). 이러한 특징들은 사회불안의 핵심 증상과 유사하며(Feldman & Downey, 1994), 사회불안의 하위 요인 중 특히 대인불안을 예측하는 요인이다(이복동, 2000).

마지막으로 정서는 행동 및 동기, 사고에 영향을 미치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

로 여겨진다(Greenberg et al., 2008). 정서는 본래 행동화되고 표현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Frijda, 1986), 타인과 관계를 맺고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없기에 정서 표현의 욕구 및 억제의 욕구를 함께 가지게 된다(배민정, 정윤경, 2015). 즉, 정서표현 양가성은 감정 표현의 욕구를 억제하는 것에 대해 갈등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King & Emmons, 1990). 정서 표현을 어려워하거나 억압하는 사람들은 자기 개방을 어려워하고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와 공감을 덜 받는다고 지각하며(Emmons & Colby, 1995),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경험한다(김민경, 현명호, 2013).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회피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는 정서 표현을 더 힘들게 만들어(Emmons & Colby, 1995) 사회불안의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King & Emmons, 1991; 이성원, 양난미, 2015).

발달적 관점에서 기질은 생물학적 요인이며, 인지는 그 이후 발달 과정 중에 발달하게 된다(White et al., 2010). 이러한 발달 순서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사회불안의 통합 모형 연구들은 행동억제 기질이 인지적 요인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Perez-Edgar et al., 2010; Viana & Gratz, 2012).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사람은 모호한 단서를 거부적이고 위협적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는데(Balconi & Cobelli, 2014), 이는 사회적 상황 회피,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사회불안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Kimbrel, 2008). 또한 행동억제 기질은 회피적인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을 보이는데(Leen-Feldner et al., 2004; Zvolensky et al., 2001), 이는 분노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서적 반응을 억제하고 내면화하는 경향을 나타내며(Cooper et al., 2008),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확률을 높인다(Calkins, 1994; Kagan et al., 1987).

이처럼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존재하나, 각 변인들과 사회불안을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연구는 드물다. 그러나 사회불안이 다중 변인에 의한 상호 관계적 영향에서 기인한다는 것을 근거로 봤을 때, 각 변인 간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행동억제 기질과 정서적 요인 간의 관계는 주로 정서 조절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가 대다수이며, 사회불안을 연구한 대다수의 선행 연구들은 주로 인지적 요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Kashdan & Herbert, 2001; Turk et al., 2005). 행동억제 기질과 정서표현 양가성 간의 직접적인 관계 및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이 간접 혹은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는 드문 상황이기에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불안의 유지 및 치료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회불안의 발달 모형 및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Kashdan & Herbert, 2001; Neal & Edelmann, 2003).

지금까지의 논지를 종합하면, 사회불안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인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 만큼 발달을 예측하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 사회불안을 발생시키는 요인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사회불안의 발달과 관련하여 단일 요인으로만 이루어진 단편적인 선행연구들을 보완하면서 다양한 요인들을 통합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행동억제 기질이 거부에 대한 민감성 발달과 관련하여, 정서 표현을 억제하려는 성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쳐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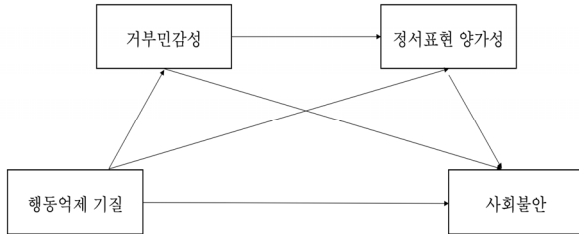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연구 문제 1.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 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간에는 어떠한 영향력이 있는가?

연구 문제 2.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이 매개하여 영향을 미치는가?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성인 남녀 3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 조사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자 중 ‘남성’ 101명(26.2%), ‘여성’ 285명(73.8%)이었고, 연령은 18~57세로 분포되어 있다. 연구 대상자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 이상’은 17명(4.4%), ‘대학원 재학’은 45명(11.7%), ‘대학교 졸업’은 118명(30.6%), ‘대학교 재학’은 204명(52.8%), ‘고등학교 졸업’은 2명(0.5%)이었다.

연구도구

성인 기질 척도

최은실 외(2022)의 개발 예정인 초안으로, 다양

한 기질 이론을 기반으로 제작된 성인 기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합리적-경험적 접근 방식을 사용하였고 6개의 하위 요인(활동성, 행동억제, 부정적 정서성, 긍정적 정서성, 의도적 통제, 공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61문항이며,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 기질과 관련된 10문항만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항상 그렇다)가 사용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억제 기질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01이었다.

거부민감성 척도(RSQ)

Downey와 Feldman(1996)이 개발한 질문지를 이복동(2000)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거부민감성 척도(The Rejection Sensitivity Questionnaire: RSQ)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성인 초기 부모, 친구, 연인 등 개인에게 중요한 타인과 관련된 18가지의 요구 상황을 제시한다. 총 36문항으로, 각 상황에 대해 ‘거부 예상’과 ‘수용 예상’을 6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6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한다. 각 상황에 대한 거부 예상과 수용 예상 점수를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18로 나눈 값을 거부민감성이라 정의한다. 이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의 거부에 대한 민감함이 높음을 의미한다. Downey & Feldman(1996)의 원 척도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가 .83이었고, 타당화한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전체 .737, ‘염려/불안’은 .922, ‘거부/기대’는 .894이었다.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한국판(AEQ-K)

King과 Emmons(1990)가 개발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를 최해연과 민경환(2007)이 한국적 맥락에 맞춰서 번안 및 타당화한 정서표현 양가성 척도 한국판(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Questionnaire-K: AEQ-K)을 사용하였다. 정서 표현과 관련된 사고 및 행동, 느낌에서 생기는 갈등과 정서표현을 억제하는 경향 정도를 측정한다. 하위 요인은 '자기방어적 양가성'과 '관계관계적 양가성'으로 나뉘며, 자기방어적 양가성이란, 정서 표현에 대한 무능감 혹은 정서 표현의 결과로 거부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관계관계적 양가성이란 타인과의 관계를 의식하거나 체면을 차리기 위해 자신의 정서 표현을 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총 24문항으로 5점 Likert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 및 갈등하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해연과 민경환(2007)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9이었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자기방어 양가성'은 .910, '관계방어 양가성'은 .821이었다.

한국판 사회불안 상호작용 척도(K-SIAS)

Mattick 및 Clarke(1998)가 개발하여 김향숙(2001)이 번안한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에, 최병휘(2006)가 번안한 것을 덧붙인 한국판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Korean-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K-SIAS)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에서 보이는 행동, 인지, 정서적 반응과 관련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0점: 전혀 그렇

지 않다 ~ 4점: 매우 그렇다)이며, 역채점을 해야 할 부정 문항이 혼합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안을 더 많이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적 합치도 계수는 .929이었다.

연구절차

본 연구의 설문 조사는 2021년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29일간 진행되었고, 구글 설문지 사이트를 이용하였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척도로 구성된 설문지를 온라인으로만 배포하여 연구 대상자가 응답하도록 하였다. 윤리적 규정에 따라 연구의 목적과 비밀 보장을 고지하였고,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들에 한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설문 참여에 대한 소정의 상품이 지급되었으며 설문은 모두 응답하는데 약 1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살펴 보기 위해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3.0과 PROCESS macro for SPSS v.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고,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내적 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이후, 각 변인 간의 상관성 및 다중공선성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Pearson의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PROCESS Macro의 Model 6을 적용하여, 각 변인 간의 매개효과 및 이중매개 효과를 동시에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이 때 표본 수는 10,000개로 설정하였으며, 모든 분석에서의 유의 수준은 $p < .05$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결과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주요 변인들의 분산성, 집중 경향도 및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여 자료의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변인들의 왜도의 절댓값 범위는 $-.65 \sim .42$, 첨도의 절댓값 범위는 $-.61 \sim 1.21$ 로, 왜도의 절댓값이 $|3|$, 첨도의 절댓값이 $|10|$ 을 넘지 않아 정규성 가정을 만족시킨다(Kline, 2015). 또한 각 변인 간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상관계수가 .80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본다(장상희, 이상문, 2007). 본 연구 모형의 변인들 간 상관계수들 중 가장 높은 값은 .767이기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은 하위 변인을 포함하여 서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행동억제 기질은 염려/불안($r = .418, p < .001$), 자기방어($r = .474, p < .001$), 관계방어($r = .250, p < .001$), 사회불안($r = .767, p < .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수용/기대($r = -.279, p < .0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염려/불안은 수용/기대($r = -.498, p < .001$)

표 1. 변인 간 상관 및 기술통계

변인	1	2-1	2-2	3-1	3-2	4
1. 행동억제 기질	1					
2. 거부민감성	2-1. 염려/불안	.418***	1			
	2-2. 수용/기대	-.279***	-.498***	1		
3. 정서표현 양가성	3-1. 자기방어	.474***	.554***	-.431***	1	
	3-2. 관계방어	.250***	.361***	-.181***	.612***	1
사회불안	.767***	.615***	-.435***	.720***	.404***	1
평균	2.98	2.83	4.23	2.90	3.54	1.75
표준편차	0.90	0.92	0.68	0.87	0.69	0.77
왜도	0.02	0.42	-0.65	0.06	-0.30	0.13
첨도	-0.61	-0.10	1.21	-0.59	-0.20	-0.42

*** $p < .001$.

표 2.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회귀분석 결과 (N=386)

경로	S.E	t	F	95% CI		R ²	
				LLCI	ULCI		
행동억제기질→거부민감성	.268	.049	5.459***	29.797***	.172	.365	.072
행동억제기질→정서표현 양가성	.364	.046	7.924***	63.970***	.274	.454	.250
거부민감성→정서표현 양가성	.259	.046	5.649***		.169	.350	
행동억제기질→사회불안	.571	.029	19.582***		.513	.628	
거부민감성→사회불안	.126	.028	4.478***	364.818***	.071	.181	.741
정서표현 양가성→사회불안	.376	.030	12.505***		.317	.435	

***p<.001

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방어($r=.554$, $p<.001$), 관계방어($r=.361$, $p<.001$), 사회불안($r=.615$,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수용/기대는 자기방어($r=-.431$, $p<.001$), 관계방어($r=-.181$, $p<.001$), 사회불안($r=-.435$, $p<.0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또한 자기방어는 관계방어($r=.612$, $p<.001$), 사회불안($r=.720$,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관계방어는 사회불안($r=.404$, $p<.0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효과 검증

변인 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 간 결과가 $p<.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인인 행동억제 기질은 매개변인인 거부민감성과($\beta=.268$, $p<.001$) 정서표현 양가성에($\beta=.364$, $p<.001$)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매개변인끼리의 관계에서도 거부민감성이 정서표현 양가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왔다($\beta=.259$, $p<.001$). 각 변인과 사회불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행동억제 기질($\beta=.571$, $p<.001$),

거부민감성($\beta=.126$, $p<.001$), 정서표현 양가성($\beta=.376$, $p<.001$) 모두 사회불안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및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각각의 매개 변인 또한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모든 변인이 종속 변인인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간접효과로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였다. 95%의 신뢰구간에서 매개효과 추정치에 대한 경로계수의 상한 값과 하한 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Preacher et al, 2008).

분석 결과, 독립변인인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직접 효과 및 간접 효과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경로인 행동억제 기질 → 거부민감성 → 사회불안으로 가는 매개 경로의 경우, 경로계수의 매개효과 크기는 .034 이며 신뢰구간에 의한 계수 값의 범위가 하한 값 .016과 상한 값 .056로 나타나, 그 값이 0을 포함하지 않지

표 3. 간접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N=386)

경로	Boot	S.E	95% CI		
			Boot LLCI	Boot ULCI	
행동억제기질→거부민감성→사회불안	.034	.010	.016	.056	
행동억제기질→정서표현 양가성→사회불안	.137	.022	.097	.182	
행동억제기질→거부민감성→정서표현 양가성→사회불안	.026	.008	.013	.042	
		S.E	t	LLCI	ULCI
총 효과	.768	.033	23.461***	.703	.832
직접 효과	.571	.029	19.582***	.513	.628

***p<.001

에 매개효과를 보였다. 두 번째 경로인 행동억제 기질 →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불안의 매개경로는 간접효과의 값이 .137이며, 신뢰구간에 의한 계수 값의 범위가 하한 값 .097에서 상한 값 .182 사이에 있어 매개효과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행동억제 기질 → 거부민감성 → 정서표현 양가성 → 사회불안의 매개 경로는 계수의 값이 .026이며 신뢰구간에 의한 계수 값의 범위가 하한 값 .013부터 상한 값 .042 사이에 있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모형에서는 3개의 개별 매개효과, 총 효과, 직접효과, 총 간접효과 모두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 외에도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만을 거치는 단일매개효과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추가했을 때, 19.68%를 추가로 설명하여 총 설명량은 76.75%로 보고되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생물학적 요인인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간에 관계에서 인지적 요인인 거부민감성과 정서적 요인인 정서표현 양가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사회불안의 발달을 보다 통합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각 변인이 영향을 주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에서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먼저 생물학적 요인들 중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한 선행연구들과(Biederman et al., 2001; Schwartz et al., 1999; 양주경, 김은정, 2007; 최미미, 조용래, 2008) 일치하였다. 또한 행동억제 기질은 대인불안의 직접 경로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오경자, 양윤란, 2003a), 청소년기를 이어(오경자, 양윤란, 2003b) 성인기까지 이어진다는 연구(김수진, 박기환, 2017; Wittichen et al., 199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둘째, 행동억제 기질이 강할수록 거부적인 양육

태도를 보여 거부민감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류혜라, 박기환, 2014; Dadds et al., 1996; Jin et al., 2018)들을 지지한다. 행동억제 기질은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태도를 유발시키고(Rajchert & Winiewski, 2016), 이러한 양육태도를 아동은 내재화하여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럴 것이라 기대하게 된다(Bogels et al., 2011). 즉, 행동억제 기질이 높을수록 거부민감성도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민감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행동억제 기질이 강할수록 정서표현 양가성의 하위 요인인 자기방어적 양가성 및 관계관계적 양가성과 관련이 높다는 연구 결과(서영정, 조영아, 2018; 허다연, 이기학, 2017)와 일치하였으며, 행동억제 기질이 강할수록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정서를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김윤정 외, 2016; Cooper et al., 2008)과도 맥을 함께 한다.

넷째,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직접적인 정서 표현을 억제하고(Stuart, 2014), 대인관계 유지를 위해 정서 표현과 관련하여 많은 갈등을 경험한다는 선행연구(Gross & John, 2003; Impett et al., 2005)들을 지지한다. 이를 통해 거부민감성이 높은 개인들은 정서 표현의 욕구는 존재하나 이를 억제하는 양가 감정을 자주 경험하게 되며, 그로 인해 실제로 자신의 정서를 억제하고 표현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 째,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모호한 단서를 받아들이기에 사회적 상황을 회피한다는 선행연구 결과(Levy et al., 2001; London et al., 2007)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직접적으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연구하여 거부민감성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이 높

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국내 연구들(김나경, 양난미, 2016; 노운영, 남숙경, 2019; 이영아, 이인혜, 2016)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이 높을수록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인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한 선행연구들(김민경, 현명호, 2013; 이성원, 양난미, 2015; Emmons & Colby, 1995; Morrison & Heimberg, 2013)과 일치한다. 즉, 자신의 감정을 억압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정보로 상황을 판단 및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지며 사회적인 상황을 회피한다(김형준, 오수성, 2012). 긍정 정서를 포함한 모든 정서에 대해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기 때문에, 이는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 형성을 방해하고(King & Emmons, 1990) 사회불안을 경험하게 한다는 선행연구(한정숙, 최승원, 2014)들과 맥을 같이 한다.

다음으로 각 변인 간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민감성 및 정서표현 양가성 각각을 매개하여 성인의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이 자신을 거부할 것이라 예측하고, 이로 인해 위축되고 행동이 억제되며 사회적 상황에서 높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선행연구(박슬기, 201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높은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에 대한 민감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후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적 상황에서 두려움 및 불안감을 경험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정서표현 양가성이 사회불안과 관련되어 있는 정서적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을 지지한다(이성원, 양난미, 2015; 정문경, 오은주, 2015;

Morrison & Heimberg, 2013).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과 더불어, 행동억제 수준이 강할수록 높은 정서표현 양가성을 보여 사회불안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중학생 대상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서영정, 조영아, 2018). 즉, 행동억제 기질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정서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경험하기에(Leen-Feldner et al., 2004; 최해연, 2008),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여(Zvolensky et al., 2001)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이 더욱 높아진다(서영정, 조영아, 2018)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은 직접적인 영향 뿐만 아니라, 성인의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사회불안으로 이어지는 간접적인 영향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행동억제 기질이 강할수록 정서 표현의 욕구는 있으나 이를 억압 및 억제하는 경향성을 띄며, 이후 사회적 상황 및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중매개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은 거부민감성을 선행 요인으로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사회불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설명력은 57%이나 행동억제 기질이 거부민감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정서표현 양가성을 거쳐 사회불안에 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대략 77%로, 행동억제 기질 단독만으로 설명하였을 때보다 20% 정도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즉,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이 강할수록 거부에 대한 민감성은 높아지고, 이는 정서적 표현에 대한 양가 감정에 영향을 미쳐 성인의 사회불안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행동억제 기질이 주 양육자의 양육태도와 상호작용하고(Kagan, 1994; Kagan et al., 1998; Rubin et

al., 1997) 양육자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지 체계에 영향을 미쳐 이후 타인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김은정, 원호택, 2000; Bogels et al., 2011). 양육자의 거부적인 양육태도에 의해 형성된 거부에 대한 인지 체계는 성인이 된 후에 타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져,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직접 표출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만든다(Stuart, 2014). 본 논문의 연구 결과는 사회불안의 발달에 있어 생물학적 요인인 행동억제 기질, 인지적 요인인 거부민감성, 정서적 요인인 정서표현 양가성 등 각 영역별 요인을 단일적으로 살펴보는 것보다 모든 영역별 요인들을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사회불안의 발달 및 유지 요인을 더 잘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생물학적 요인이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상담 장면에서 다뤄줌으로써 사회불안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인의 사회불안과 관련된 원인 파악 및 성인 기질을 포함한 개인의 내적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데 의의가 있다.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 거부민감성, 정서표현 양가성, 사회불안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성인의 사회불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일 요인이 아닌 다요인적 관점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들을 뒷받침한다. 이와 더불어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이 사회불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아동 청소년 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상담에서도 한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탐색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순차적으로 매개함을 확인하여, 생물학적인 기질이 한 개인의 인지와 정서적인 부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와 이러한 영향이 이후 어떻게 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과 사회불안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 혹은 보호요인을 탐색하는 연구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즉, 사회불안의 발달 및 유지와 관련된 요인인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다루는 방식을 통해 사회불안의 완화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성인의 행동억제 기질과 같은 생물학적인 요인은 상담을 통한 개선이 어렵기에, 거부민감성과 정서표현 양가성 같은 심리적인 특성을 다루주는 상담 전략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의 유지 및 발달에 있어 정서적인 요인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정서는 인간 행동의 기저를 이루는 기본 요소이며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불안의 유지 및 발달적 기저에 있어 그 중요성은 최근에서야 주목 받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사회불안의 유지 및 발달에 정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 요인 중 특히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억제하는 갈등이 문제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정서 표현의 욕구를 적응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사회불안의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으며, 상담 장면에서 상담자는 사회불안을 경험하는 내담자의 정서 표현의 두려움을 이해해주고,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안전하다는 것을 연습함으로써 사회불안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주 연령대가 20대이고, 남녀 참여자의 비율에도 차이가 있기에 일반화함에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보다 균형적

인 성비 및 폭넓은 연령, 학력, 직업군, 임상 및 비임상 집단 등을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혹은 연령, 성별, 사회경제적 환경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어떻게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특정 하위 기질이 아닌 성인의 기질적 성향 패턴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성인 기질에 대한 관점을 확장시키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불안에 취약한 기질 유형에 대해 탐구하고 조기에 효과적으로 개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탐색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회불안의 예방 및 억제와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기에,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성격 특성, 임상 및 비임상적인 정서적 특성들을 확인하여 사회불안의 억제 변인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나경, 양난미 (2016).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과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217-238.
- 김민경, 현명호 (2013). 내면화된 수치심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자기제시동기, 자기제시기대 및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32**(1), 161-176.
- 김수진, 박기환 (2017). 사회불안의 해석편향에 미치는 행동억제와 부모양육행동의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6**(4), 617-629.
- 김윤정, 이옥경, 이해원, 조영일, 이원혜 (2016). 위험회피 기질과 회고된 어머니의 비지지적 반응

- 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9(1), 1-23.
- 김은정, 원호택 (2000). 사회공포증 집단이 사회공포 상황에서 보이는 사회적 자기처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1), 33-45.
- 김형준, 오수성 (2012). 특성불안과 방어성향에 따른 정서자극에 대한 주의편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1), 127-145.
- 권은미, 신민섭, 김은정 (2009). 내현적 자기애가 사회공포증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기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627-642.
- 남원희, 최은실, 윤진영, 최해훈 (2020). 부모용 유아 기질 검사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36-72개월을 대상으로. **열린부모교육학회**, 12(3), 69-95.
- 노운영, 남숙경 (2019).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20(4), 285-304.
- 류혜라, 박기환 (2014).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지적 정서조절의 중재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203-218.
- 박명진, 양난미 (2017).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03-127.
- 박슬기 (2019). 위험회피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 거부민감성을 통한 부적응적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된 조절효과. 경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민정, 정윤경 (2015). 어머니의 정서표현 양가성이 양육태도와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8(2), 159-174.
- 서영정, 조영아 (2018). 중학생의 행동억제기질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9(11), 68-77.
- 양주경, 김은정 (2007).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기제: 행동억제기질, 가족 환경, 역기능적 신념, 불안통제감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1), 198-199.
- 오경자, 양윤란 (2003a).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I: 행동억제 기질, 부모양육태도 및 외상경험의 영향.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557-576.
- 오경자, 양윤란 (2003b). 청소년기 사회불안의 발생과 유지의 심리적 기제 2: 6개월 추적조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2(3), 577-597.
- 오윤희, 안창일, 오강섭 (2005). 한국판 자기보고식 회고적 행동억제 척도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3), 677-692.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원, 양난미 (2015). 대학생의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4), 225-244.
- 이영아, 이인혜 (2016). 남녀 대학생에서 거부민감성과 사회불안 간의 관계: 주의초점의 매개효과와 주의전환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2), 641-660.
- 임전옥, 장성숙 (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

- 절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59-275.
- 장상희, 이상문 (2007). **사회통계학**. 서울: 교우사.
- 정문경, 오은주 (2015). 청소년의 사회불안과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정서억제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7), 335-361.
- 최미미, 조용래 (2008). 지각된 부모양육행동과 행동억제가 대학생의 사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신념과 정서조절곤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576-577.
- 최병휘 (2007). **사회공포증의 인지행동집단치료**. 서울: 시그마프레스.
- 최은실 외 (2022). **영유아 및 성인 기질 척도**. 학지사.
- 최해연 (2008).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과 억제 연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해연, 민경환 (2007). 한국판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 척도의 타당화 및 억제 개념들 간의 비교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4), 71-89.
- 한정숙, 최승원 (2014). 사회부과 완벽주의 및 자기지향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자의식과 정서표현갈등의 매개효과-여대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3), 791-816.
- 허다연, 이기학 (2017). 양육행동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정서표현갈등과 행동억제기질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상담학연구**, 18(1), 133-156.
- 홍진표 (2017). **2016년도 정신질환 실태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 & 삼성서울병원.
- Balconi, M., & Cobelli, C. (2014). Motivational mechanisms (BAS) and prefrontal cortical activation contribute to recognition memory for emotional words. rTMS effect on performance and EEG (alpha band) measures. *Brain and language*, 137, 77-85.
<https://doi.org/10.1016/j.bandl.2014.08.006>
- Barlow, D. H. (2004). Anxiety and its disorders: The nature and treatment of anxiety and panic. *Guilford press*.
- Baumeister, R. F., & Leary, M. R. (1995). The need to belong: Desire for interpersonal attachments as a fundamental human motivation. *Psychological Bulletin*, 117(3), 497-529.
<https://doi.org/10.1037/0033-2909.117.3.497>
- Biederman, J., Hirshfeld-Becker, D. R., Rosenbaum, J. F., Hérot, C., Friedman, D., Snidman, N., & Faraone, S. V. (2001). Further evidence of association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and social anxiety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10), 1673-1679.
<https://doi.org/10.1176/appi.ajp.158.10.1673>
- Bögels, S., Stevens, J., & Majdandžić, M. (2011). Parenting and social anxiety: Fathers' versus mothers' influence on their children's anxiety in ambiguous social situation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2(5), 599-606.
<https://doi.org/10.1111/j.1469-7610.2010.02345.x>
- Calkins, S. D. (1994). Origins and outcomes

- of individual differences in emotion regulation.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53-72. <https://doi.org/10.2307/1166138>
- Caspi, A., Harrington, H., Milne, B., Amell, J. W., Theodore, R. F., & Moffitt, T. E. (2003). Children's behavioral styles at age 3 are linked to their adult personality traits at age 26. *Journal of personality*, 71(4), 495-514. <https://doi.org/10.1111/1467-6494.7104001>
- Coll, C. G., Kagan, J., & Reznick, J. S. (1984). Behavioral inhibition in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5(3), 1005-1019. <https://doi.org/10.2307/1130152>
- Cooper, A., Gomez, R., & Buck, E. (2008).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BIS and BAS, anger and responses to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2), 403-413. <https://doi.org/10.1016/j.paid.2007.09.005>
- Dadds, M. R., Barrett, P. M., Rapee, R. M., & Ryan, S. (1996). Family process and child anxiety and aggression: An observational analysi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4(6), 715-734. <https://doi.org/10.1007/bf01664736>
- Davila, J., & Beck, J. G. (2002). Is social anxiety associated with impairment in close relationships? A preliminary investigation. *Behavior Therapy*, 33(3), 427-446. [https://doi.org/10.1016/s0005-7894\(02\)80037-5](https://doi.org/10.1016/s0005-7894(02)80037-5)
- Downey, G., & Feldman, S. I. (1996). Implications of rejection sensitivity for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6), 1327-1343. <https://doi.org/10.1037/0022-3514.70.6.1327>
- Downey, G., Feldman, S., & Ayduk, O. (2000). Rejection sensitivity and male violence in romantic relationships. *Personal Relationships*, 7(1), 45-61. <https://doi.org/10.1111/j.1475-6811.2000.tb00003.x>
- Emmons, R. A., & Colby, P. M. (1995). Emotional conflict and well-being: Relation to perceived availability, daily utilization, and observer reports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5), 947-959. <https://doi.org/10.1037/0022-3514.68.5.947>
- Feldman, S., & Downey, G. (1994). Rejection sensitivity as a mediator of the impact of childhood exposure to family violence on adult attachment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6(1), 231-247. <https://doi.org/10.1017/s0954579400005976>
- Fox, N. A., Henderson, H. A., Marshall, P. J., Nichols, K. E., & Ghera, M. M. (2005). Behavioral inhibition: Linking biology and behavior within a developmental framework. *Annual Review of Psychology*,

- 56(1), 235-262.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5.090902.141532>
- Frijda, N. H. (1986). *The emotion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reenberg, L. J., Warwar, S. H., & Malcolm, W. M. (2008). Differential effects of emotion-focused therapy and psychoeducation in facilitating forgiveness and letting go of emotional injuri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5*(2), 185-196.
<https://doi.org/10.1037/0022-0167.55.2.185>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https://doi.org/10.1037/0022-3514.85.2.348>
- Hayward, C., Killen, J. D., Kraemer, H. C., & Taylor, C. B. (1998). Linking self-reported childhood behavioral inhibition to adolescent social phobia.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12), 1308-1316.
<https://doi.org/10.1097/00004583-199812000-00015>
- Impett, E. A., Gable, S. L., & Peplau, L. A. (2005). Giving up and giving in: The costs and benefits of daily sacrifice in intimat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3), 327-344.
<https://doi.org/10.1037/0022-3514.89.3.327>
- Jin, M. J., Jung, W., Hyun, M. H., & Lee, S. H. (2018).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system and childhood emotional neglect on serotonergic activity, negative affect, and rejection sensitivity in non-clinical adults. *PLoS one, 13*(11), e0207746.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207746>
- Kagan, J. (1994). Galen's prophecy: Temperament in human nature. Basic Books, New York.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7). The physiology and psychology of behavioral inhibition in children. *Child development, 58*(6), 1459-1473.
<https://doi.org/10.2307/1130685>
- Kagan, J., Reznick, J. S., & Snidman, N. (1988). Biological bases of childhood shyness. *Science, 240*(4849), 167-171.
<https://doi.org/10.1126/science.3353713>
- Kagan, J., Snidman, N., & Arcus, D. (1998). Childhood derivatives of high and low reactivity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69*(6), 1483-1493.
<https://doi.org/10.2307/1132126>
- Kashdan, T. B., & Herbert, J. D. (2001). Social anxiety disorder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1), 37-61.
- Kimbrel, N. A. (2008). A model of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 generalized social phobia.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4), 592-612.
<https://doi.org/10.1016/j.cpr.2007.08.003>
- King, L. A., & Emmons, R. A. (1990). Conflict over emotional expression: Psychological and physical correlat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5), 864-877.
<https://doi.org/10.1037/0022-3514.58.5.864>
- King, L. A., & Emmons, R. A. (1991). Psychological, physical, and interpersonal correlates of emotional expressiveness, conflict, and contro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5(2), 131-150.
<https://doi.org/10.1002/per.2410050206>
- Kross, E., Egner, T., Ochsner, K., Hirsch, J., & Downey, G. (2007). Neural dynamic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Cognitive Neuroscience*, 19(6), 945-956.
<https://doi.org/10.1162/jocn.2007.19.6.945>
- Leen-Feldner, E. W., Zvolensky, M. J., Feldner, M. T., & Lejuez, C. W. (2004). Behavioral inhibition: Relation to negative emotion regulation and reactiv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6), 1235-1247.
[https://doi.org/10.1016/s0191-8869\(02\)00113-7](https://doi.org/10.1016/s0191-8869(02)00113-7)
- Levy, S. R., Ayduk, O., & Downey, G. (2001). The role of rejection sensitivity in people's relationships with significant others and valued social groups. *Interpersonal rejection*, 10, 251-289.
<https://doi.org/10.1093/acprof:oso/9780195130157.003.0010>
- London, B., Downey, G., Bonica, C., & Paltin, I. (2007). Social causes and consequences of rejection sensitivity.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7(3), 481-506.
<https://doi.org/10.1111/j.1532-7795.2007.00531.x>
- Mendlowicz, M. V., & Stein, M. B. (2000). Quality of life in individuals with anxiety disorder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7(5), 669-682.
<https://doi.org/10.1176/appi.ajp.157.5.669>
- Merikangas, K. R., Avenevoli, S., Acharyya, S., Zhang, H., & Angst, J. (2002). The spectrum of social phobia in the Zurich cohort study of young adults. *Biological psychiatry*, 51(1), 81-91.
[https://doi.org/10.1016/s0006-3223\(01\)01309-9](https://doi.org/10.1016/s0006-3223(01)01309-9)
- Morrison, A. S., & Heimberg, R. G. (2013). Social anxiety and social anxiety disorder.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249-274.
- Neal, J. A., & Edelman, R. J. (2003).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Toward a developmental profile. *Clinical Psychology Review*, 23(6), 761-786.
[https://doi.org/10.1016/s0272-7358\(03\)00076-x](https://doi.org/10.1016/s0272-7358(03)00076-x)
- Pérez-Edgar, K., Bar-Haim, Y., McDermott, J. M., Chronis-Tuscano, A., Pine, D. S., &

- Fox, N. A. (2010). Attention biases to threat and behavioral inhibition in early childhood shape adolescent social withdrawal. *Emotion, 10*(3), 349-357. <https://doi.org/10.1037/a0018486>
- Preacher, K. J., & Hayes, A. F. (2008).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40*(3), 879-891. <https://doi.org/10.3758/brm.40.3.879>
- Rajchert, J., & Winiewski, M. (2016). The behavioral approach and inhibition systems' role in shaping the displaced and direct aggressive reaction to ostracism and reje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8*, 272-279. <https://doi.org/10.1016/j.paid.2015.09.018>
- Rapee, R. M., & Spence, S. H. (2004). The etiology of social phobia: Empirical evidence and an initial model.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7), 737-767. <https://doi.org/10.1016/j.cpr.2004.06.004>
- Rubin, K. H., Hastings, P. D., Stewart, S. L., Henderson, H. A., & Chen, X. (1997). The consistency and concomitants of inhibition: Some of the children, all of the time. *Child development, 68*(3), 467-483. <https://doi.org/10.2307/1131672>
- Schwartz, C. E., Snidman, N., & Kagan, J. (1999). Adolescent social anxiety as an outcome of inhibited temperament in childhood.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8*(8), 1008-1015. <https://doi.org/10.1097/00004583-199908000-00017>
- Stuart, G. W. (2014). Principles and practice of psychiatric nursing-e-book. *Elsevier Health Sciences*.
- Turk, C. L., Heimberg, R. G., Luterek, J. A., Mennin, D. S., & Fresco, D. M. (2005). Emotion dysregulation in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A comparison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9*(1), 89-106. <https://doi.org/10.1007/s10608-005-1651-1>
- Viana, A. G., & Gratz, K. L. (2012). The role of anxiety sensitivity, behavioral inhibition, and cognitive biases in anxiety symptom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direct and indirect pathways.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68*(10), 1122-1141. <https://doi.org/10.1002/jclp.21890>
- White, L. K., Helfinstein, S. M., & Fox, N. A. (2010). Temperamental factors associated with the acquisition of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and anxiety. In J. A. Hadwin & A. P. Field (Eds.), *Information processing biases and anxiety: A developmental perspective* (pp. 233-252). *Wiley Blackwell*. <https://doi.org/10.1002/9780470661468.ch10>
- Wittichen, H.U., Stein, M.B., & Kessler, R.C. (1999). Social fears and social phobia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Prevalence, risk factors, and co-morbidity. *Psychological Medicine*, 29(2), 309-323.

<https://doi.org/10.1017/s0033291798008174>

Zvolensky, M. J., Feldner, M. T., Eifert, G. H., & Stewart, S. H. (2001). Evaluating differential predictions of emotional reactivity during repeated 20% carbon dioxide-enriched air challenge. *Cognition & Emotion*, 15(6), 767-786.

<https://doi.org/10.1080/02699930143000284>

The Effect of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on Social Anxiety: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ae Yeon Kim¹

Eun Sil Choi²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Master¹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Professor²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diation effects of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regarding the effects of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on social anxiety. To verify this,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anxiety were measured in 386 adul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in adulthood,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social anxiety. Second,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direct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anxiety. Third,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social anxiety by mediating both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Finally, it was found that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had an indirect significant effect on social anxiety by sequentially mediating the rejection sensitivity and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for understanding the causes of social anxiety in adults and the interaction of individual internal variables including adult temperament. Further, the findings suggest that a multifactorial perspective is needed to understand social anxiety in adults. The research findings also suggest that social anxiety can be alleviated through counseling strategies that deal with adults'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Keywords: behavioral inhibition temperament, social anxiety, rejection sensitivity, ambivalence over emotional expressiveness, double mediation effect